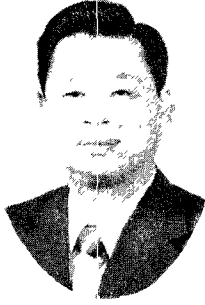


세계속의 한국양계 내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이 계 소
(전후부위원장 대리)

닭의 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序 論 =

우리 養鷄業界는 비약적으로 發展된 만큼 改善되어야 할 문제점도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간 本人은 여러 나라의 사정과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계업의 사정 이업에 종사해온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다른 나라의 입장과 그들의 행동을 비교해 볼 때 느꼈던 점, 우리는 이제부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항목별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목 차

- 1. 닭의 종자
- 2. 육종에 대한 생각
- 3. 종자 생산과 육종에 대한 생각
- 4. 사육과 육종에 대한 생각
- 5. 육종에 대한 생각
- 6. 육종에 대한 생각
- 7. 육종에 대한 생각
- 8. 육종에 대한 생각
- 9. 육종에 대한 생각
- 10. 육종에 대한 생각

1. 우량계 종자의 중요성

누구나 육종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로 경제형질이 잘 조합된 우수한 닭을 육종해 내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비록 20-30년간의 오랜 닭 육종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농장이라해서 반드시 우량계를 개

량해 낼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외국으로부터 사모원료를 들여야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능력이 우수한 닭을 서둘러 확보해야 할 절실한 입장에 지해 있다
예를들어, 1년 산란기간에 계란 1개를 나

놓고, 사료요구율 0.1을 개선할수 있는 닭을 가지고 있다면 전국적으로 계란1,600만여 개 (약 4 억원) 증산, 사료23,000여톤(약23억원)을 절감하여 총27억원(약545만달러)을 절약하게 되는 실로 막대한 차이를 보인다

좋은 닭의 확보는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육종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 당연히 육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국가는 가장 어려운 가금육종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출발을 시작했다.

부화업에 다년간 종사해온 우리는 이러한 국가 시책에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것인가?

참으로 짧은 시일내에 어려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2. 우리의 급선무

세계 선진국에 산재해있는 우수한 육종회사들이, 닭의 적은 능력의 차이로 넘어가고 살아나고 하는 희비 쌍곡선이 오가고 있다.

많은 시일과 자본을 투입해서 연구 개량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을 계속하는 이 마당에서 적은돈으로 짧은 시일에 어떻게 그네들과 경쟁을 하여야 할것인가?

비록 능력이 나쁜 닭이라해도 국산품을 애용하는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닭의 능력에 관한한 이것은 극히 잘못된 생각이며 결국 비 애국적인 결과만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20만불의 외국계 수입대금을 절약하려고 500만불 이상의 자원 낭비를 초래하지는 않겠는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사고의 결과는 막대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 애국하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애국할 수 있는 현명이 필요한것이다.

현재 우리의 급선무는 가장 빠른 시일안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준급의 닭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여기에 뜻있는 많은 동업자들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3. 현재의 우리입장

1) 외국의 선진된 육종회사들이 20—30년전에 시작한 그 출발점에서 우리도 육종을 시작할 수는 없다.

2) 또한 상당기간을 경제성이 떨어지는 닭으로 견딜수도 없다.

3) 우리가 취할 유일한 방법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cc를 생산하는 종계의 순계(Pure-line)을 구입확보하여 우선 우리나라 닭의 능력을 그 닭의 능력까지 끌어올려놓고

4) 그에서 더욱 선발, 교잡이 잘 되었을때, 보다 더 우수한 능력의 닭이 개량되어 국제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우리나라 육종회사들이 보유한 순계의 유전풀(pool)이 더욱 넓어지면, 서로 교환, 교잡 시험을 하여 보다 우수한 닭을 작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육종의 문제점과 해결책

1) 세계에서 우량계를 생산하는 육종회사들로부터 그 순계(PL)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간 세계적으로 우수한 종계들이 모두 한국시장에 공급되어 왔다고 본다. 그 공급육종회사들과 꾸준한 접촉을 벌려,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시키면 순계를 공급받을수 있으리라 믿는다.

외국계 전면 수입금지 정책에서 순계만을 수입하도록 한 정부시책은 한국의 닭 육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을지 나쁠지는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 결과가

아주 좋았다 할지라도 일류급 외국계와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육종 결과가 외국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외국계를 수입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 닭의 개량에 부수된 또 하나의 중요과제 육종용 계군내에 난계대성 질병을 오염시키지 않는 문제

이점은 닭의 우수한 유전능력을 발휘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이다

백신에서, 사료에서, 수위환경에서 사양관리면에서 갖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종계에 사용되는 생독백신은 SPF 종란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을 사용하여 난계대성 세균이 종계에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배합사료는 오염이 극소화된 정선된 원료를 사용하여,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양질의 균일한 품질로 공급되어야 한다

육종용 계군은 가금질병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난계대성 질병이 엄격히 컨트롤 될 수 있도록 사양관리 시설을 갖추고 수준높은 방역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이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문제.

좋은 닭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는 있다 국민학생 수준에서 잘그린 그림이 있을 수 있겠고, 예술가의 수준에서 잘그린 그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량계를 만들려면 국민학교생 수준에서 잘그린 그림으로 만족해 할 수는 없다

그림을 전공한 예술가의 수준에서 가장 잘

그린 작품만이 필요하며 이 작품은 대중의 공감을 얻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과 격의 없는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4) 육종 농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기업주의 헌신적인 애국심의 문제.

한국에서의 육종사업은 한마디로 돈이 안남는 사업이다

육종을 하려면 많은 시설비와 운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시장에서 한정된 판매액만을 가지고는 육종사업을 발전시키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 양계산업의 연간 외형액 1,000 억 원 중에서 양계사료부문 구성비는 약 70%인데 비하여 육종회사가 판매하는 원종계의 구성비는 단지 0.1%에 지나지 않는 것을 참작할 때 육종사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과거 10년간 수많은 세계 권지의 육종회사들이 하나 하나 도산하거나 다른 회사에 병합되고 있는 주요인은 바로 이러한 적은 수입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나

그러나, 이 0.1%의 육종 부분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 나머지 99.9%에 해당하는 양계분야를 흥하게도, 침체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육종사업이 얼마나 중요시 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육종사업은 헌신적인 애국심에 입각해서, 과감한 투자와 총력을 기울인 사명감이 발휘되어야 한다

5) 철저히 관리되는 능력검정소의 증가와 우수한 외국 닭의 출품 참여 문제.

자신 있는 좋은 닭을 개선하여 국내에 보급하고 있다고 해서 외국과 닭을 쌓는 우물안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외국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교환하여야 하며, 일류급 외국계와의 능

력비교 검정을 통하여 국내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닭 능력검정의 신빙도를 높이기 위하여 검정소는 더욱 증가되어야 하며, 또한 닭 개체간의 조건차이를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시설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국내 능력 검정에는 외국 닭도 많이 출품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내계를 외국 능력 검정에도 출품하여 능력을 비교하도록 힘써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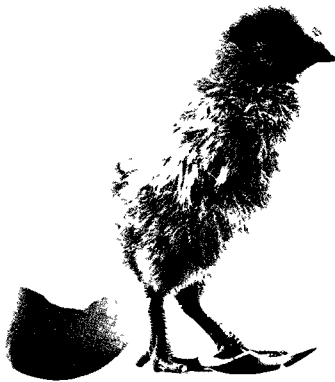
6) 여러개의 육종회사가 생겨 경합이 치열해지는 문제.

현재 우리의 입장으로는 더욱 우수한 닭을 개량해내기 위해 보다 넓은 유전풀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육종회사가 늘면 자연히 경쟁이 치열해져 그 운영에 혼란을 주겠지만,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여기서 비로서 훌륭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치열한 경합이 생길것을 예상하여, 넓은 유전풀을 확보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라 생각한다.

경합의 의욕을 갖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어떻게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호흡기병(CRD)특효약
◎빠다린병(포노상구면제)특효약
어떤근영 배드믹스

청량리가 축약품

◎지방주문환영

서울·동대문구전농 2동597의32

(한국육계회 연락처) TEL. 96 - 8780

